



▲ 양돈협회 광주·장성지부 사무실 앞. 좌측부터 차장근 전 지부장, 오재곤 총무, 임승현 지부장, 김성수 감사, 최자영 간사

2003년 우수지부

생산비 절감을 위한 공동구매 및 지원사업을 전개하는 전남 광주·장성지부

취재 : 정재은

지난 2월 19일 개최된 본회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우수지부로 선정된 전남 광주·장성지부는 다양한 공동구매 사업과 세미나뿐만 아니라 장성군과 농업기술센터, 장성축협과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통한 지원 사업으로 회원농가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983년 자발적인 광주·장성지부 설립 이후 매년 꾸준히 회비 등의 완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협회에서 추진하는 행사와 각종 조사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등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광주·장성지역 전업 양돈농가는 대부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광주·장성지부는 회원농가의 사양기술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 광주·장성지부(임승헌 지부장, 50세)는 약품과 기자재 공동구매 사업을 통해 생산비 절감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자돈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포유자돈 분유 액상 포유기와 포유자돈 대용유 분배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광주·장성지부는 장성군과 농업기술센터, 장성축협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03년의 경우 장성군에서는 구제역 차단방역 활동, 고압분무기 및 백신 지원과 함께 규격돈 생산을 위한 사료비 지원을 하였다. 2004년에는 돼지 인공수정과 톱밥과 왕겨, 그리고 환경개선제 지원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봉독을 이용한 생산성 향상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성축협 역시 환경개선제 및 컨설팅 지원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한편 광주·장성지부는 올해부터 매월 9일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기술력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동반하고 있다. 또한 회원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장성지역 불우이웃에 돼지고기를 전달해주고 있다.

광주·장성지부를 중심으로 양돈인들의 단합 이끌어

광주·장성지역 양돈농가들이 조직화를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하여 1983년 4월 광주·장성지부를 설립하였다. 광주·장성지역에서 500두 규모 이상의 전업농가는 30농가(광주 2농가, 장성 28농가)로 3만2천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다. 이중 23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이들이 지역 전체 사육두수의 87% 수준인 2만8천두를 사육하고 있고, 평균 사육두수는 1,300두 정도이다.

광주·장성지부는 공동구매 사업과 행정



▲ 전남 광주·장성지부의 임승헌 지부장. 임원진과 회원들은 단합하여 지역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아래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월례회의와 세미나 개최로 회원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고 있다. 그 결과 광주·장성지역 전업규모 양돈농가는 대부분 회원으로 각종 사업과 행사에 동참하고 단합해 나가고 있다.

임원은 임승헌 지부장, 남기환·김성수 감사, 오재곤 총무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원진과 차장군 전 지부장(53세), 회원들은 단합하여 지역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최자영 간사는 지부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임원진을 보좌해 나가고 있다.

한편 양돈자조금 대의원 선거 등 양돈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긴밀히 연락을 취하는 등 지역 양돈인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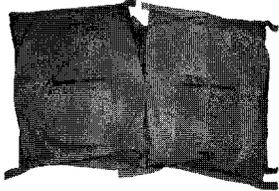
■ 각종 공동구매 사업으로 혜택 제공

광주·장성지부는 각종 공동구매 분배사업으로 회원농가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항생제, 철분제, 내외부 기생충 구충제 등의 약품과 보온등 및 급수기(니벨) 등의 기자재 공동구매 사업을 통해 비용 절감이 이루어지



◀ 보온등(우축)과 램프, 각종 기자재 공동구매 사업을 통해 회원들에게 시중 단가보다 20% 저렴하게 공급해 주고 있다.



◀ 포유자돈 대용유 분배 사업을 통해 자돈 생존율을 높이는 등 생산성적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 필요로 하는 농가에 포유자돈 분유 액상 포유기와 포유자돈 대용유 분배사업을 통해 자돈 생존율을 높이는 등 생산성적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포유자돈 분유 액상 포유기는 대리모 역할을 하며, 포유자돈 대용유 공급으로 영양을 차별화 해주고 있다.

이처럼 약품 및 기자재 등의 공동구매를 통해 회원들에게 시중단가보다 20% 저렴하게 공급해 주고 있으며, 매출액의 2% 정도의 수익금을 지부운영비로 활용하고 있다.

행정 및 유관기관의 협조 아래 각종 지원 사업 전개

광주·장성지부는 관련기관의 협조 아래 각종 지원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장성군에서는 2003년의 경우 톨게이트 등 도로입구에서 구제역 차단방역 활동을 전개했으며, 철저한 농장소독이 가능하도록 고압분무기를 지원하였고, 돈열·일본뇌염·돼지 위장염 백신 지원이 있었다. 또한 10여 농가 7,000두에 대해 규격돈 생산을 위한 사료비 지원이 이루어졌다. 2004년에는 종돈개량을 위해 보조 50%, 자담 50%로 2,000두에 대해 돼지 인공수

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축산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톱밥과 왕겨 5,400㎡ 역시 보조 50%, 자담 50%로 지원이 되고 있다. 그리고 환경개선제(미생물제제) 10톤 지원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이처럼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에는 돼지에 대한 봉독 활용의 효과에 관한 세미나와 현장 견학을 추진하였으며, 환경 개선을 위한 적외선 살균기 지원을 하였다. 올해에는 5농가를 대상으로 봉독을 이용한 생산성 향상 시범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장성축협 역시 환경개선제 효과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도사업의 일환으로 주 1회 방문을 통한 컨설팅 지원으로 농장의 문제점 해결을 돕고 있다.

세미나를 동반한 월례회의 개최와 견학을 통한 지식 제공

광주·장성지부는 올해 4월부터 매월 9일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10일에 월례회의를 하던 것을 다른 단체의 모임이 10일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9일에 개최하기로 하는 등 회원들의 편의와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년 1월에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월례회의 개최시 사양기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능력 있는 강사를 초빙한 세미나를 동반하고 있다. 2003년에는 모든 사양관리, 분만돈·포유자돈 사양관리, 혹서기 질병관리, 시설관리, 양돈 경영대책 등의 다양하고 유익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또한 국제축산박람회나 축산물브랜드전을 참관하고, 소비자와 함께 하는 가을 꽃돼지 축제 등의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유익한 정보를 습득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1년에 1번 정

도는 휴양림에서 하계 단합대회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시식회 및 불우이웃 돕기로 지역 사회 봉사활동에 동참

2003년에는 회원들이 돈육 500kg을 기증하여 광주시 서구청 유희지 텃밭에서 돼지고기 무료시식회 행사를 전개하였다. 아울러 장성 축협을 통해 장성지역 상무대(군부대)에서 필요로 하는 돈육 전량을 납품하고 있다. 또한 일부 회원들이 뜻을 모아 장성지역 고아원 및 노인정 등 불우이웃에 돼지고기를 매달 기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회원들은 지역사회와 공동체라는 의식 아래 함께 공존해 나가기 위해 시식회나 불우이웃 돕기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결집하여 양돈산업 안정 및 발전 이룩해야

임승헌 지부장은 “우리 광주·장성지부의 경우 회원 수는 많지 않지만 의견일치가 이루어져 각종 사업과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20년 이상의 광주·장성지부 전통을 중요시하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기본에 충실한 지부 운영으로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해 나가며,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생산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승헌 지부장과 오재곤 총무는 “향후 미참여 농가를 독려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더욱 결집하여 지역 양돈산업 안정을 이룩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장곤 전 지부장은 “협회는 지금까지



▲ 임승헌 지부장(좌측)과 차장곤 전 지부장.



▲ 광주·장성지부의 오재곤 총무(좌측)와 최자영 간사

개혁을 통해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 회원들의 고견을 받아들여 사업을 집행하고 제도 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양돈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재곤 총무는 “자조금을 통해 실질적인 돼지고기 소비촉진 홍보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여유자금이 마련된다면 사료 분석과 분뇨처리 해결방안 모색 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승헌 지부장은 “광주·장성지역은 농가가 밀집되어 있지 않아 PMWS, 설사병 등의 질병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며, “계속 청정지역을 유지하면서 고품질의 브랜드 돼지고기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돈**